

테크놀로지의 발전과 건축, 그리고 인간의 삶

Development of Technology, Architecture, and Human Life



김 현 섭 / 정회원, 고려대 건축학과 조교수
Kim, Hyon-Sob / Assistant Professor, Korea University
archistory@korea.ac.kr

테크놀로지의 발전은 눈부시다. 신이 내린 최초의 자연환경과 과학기술이 이룩한 현대문명을 비교해보면 그 도약은 기적 그 자체이다. 컴퓨터 단말기 앞에만 앉으면 우리는 인터넷을 통해 전 세계 곳곳의 사람들과 실시간으로 화상통신을 할 수 있고, 근래에는 이 모든 기술이 휴대전화 하나만으로도 가능해졌다. 개인의 자동차 내에서도 인공위성과 통신하며 목적지를 찾아가는 것이 보편화되었을 뿐만 아니라 무한한 우주를 향한 여행이 결코 꿈이 아닌 현실이 되었다. 의학기술의 발달은 인간의 수명을 연장시켰으며, 근래의 생명공학은 인간복제마저도 윤리적 제한만 뛰어넘으면 가까운 미래에 실현가능할 문제로 여기고 있다.

이러한 테크놀로지의 발전은 건축에서도 실제적 차원과 상징적 차원으로 다양하게 적용되어왔다. 19세기 이래 철과 유리 등 새로운 재료가 건축물에 적극 사용되고 구조공학이 이를 뒷받침함으로써 우리의 도시에는 이전에 볼 수 없었던 초고층 마천루가 나타나게 되었다. 르 꼬르뷔제의 기계 은유는 여러 근대건축가들의 디자인에 중요한 모티브가 되었을 뿐만 아니라, 벅민스터 풀러의 실제적 기계주택 모델은 한 세대 여 이후 하이테크 건축의 등장을 예견한다. 1960년대 아키그램의 다양한 실험적 건축은 첨단 테크놀로지의 발전과 우주 공상과학이 만나 이룩한 미래 도시건축의 결정판이다. 피터 쿡의 플러그인 시티나 론 헤론의 워킹 시티는 지금까지의 모든 전통과 인습으로부터 벗어난 낭만적 과학기술 낙천주의라는 새로운 욕망을 암시하며, 현대 건축가들의 아이디어에 끊임없이 자양분을 제공한다. 현재 지어지고 있는 건축물이 테크놀로지의 발전과 불가분의 관계에 있음은 두말할 나위가 없다. 프랭크 게리의 작품 이래 패션이 되어 버린 비정형의 건축물은 컴퓨터 시뮬레이션의 도움 없이는 불가능하며, 내외부에 각종 자동제어 시스템을 도입함으로써 건물 자체가 하나의 컴퓨터처럼 연동하도록 디자인하는 것은 이미 전혀 새로운 것 없는 개념이 되어버렸다.

그러면 이쯤에서 보다 근본적인 질문을 하나 던져보자. 테크놀로지와 건축의 발전은 인간의 삶의 가치를 얼마나 향상시켰나? 분명 물질적 측면에서 삶의 수준은 대체로 나아졌음에 틀림없다. 그러나 그에 부응하여 우리 삶의 정신적 가치가 진일보했다고 말할 수 있을까? 아도르노와 호크하이머는 (1944) 계몽사상을 근간으로 한 이성주의의 진보가 결국 현대사회를 아만으로 치닫게 했음을 고발한 바 있다. 그들이 비판한 도구적 이성의 또 다른 얼굴이 바로 과학결정주의 아닌가? 한편, 현대사회에서 과학기술 발전의 강력한 후원자는 다름 아닌 자본의 힘이다. 요란한 테크놀로지의 구호도 결국 자본에 포획되어 그 논리 앞에 철저히 복속되고 있다. 일찍이 마르크스는 자본주의의 폐해로 인간 소외를 꼽았다. 자본주의가 발달할수록 노동자는 자신이 생산하는 상품으로부터 점점 더 멀어지고 그 상품과 의미 있는 관계를 형성하지 못한다. 생산품은 교환을 위한 것일 뿐 자신의 사용을 위한 것이 아니다. 두바이 건축의 화려한 포트폴리오가 한 장씩 더해갈수록 저임금 이주노동자들이 겪는 소외의 골은 깊어만 간다. 건축에 예술의 특성이 있다면 실리와 무관하게 사회를 비평할 구석이 있어야 하지 않나? 마찬가지로 테크놀로지의 구속력이 강화되면 될수록 그리고 사회 시스템이 관료화되면 될수록 건축가나 건축주는 자신이 디자인한, 혹은 자신이 거주하는 건물로부터 소외된다. 대형 설계사무소의 시스템 속에서 상당수의 건축가는 디자인의 일부에만 관여하는 기술자이거나 전체 공정을 관리하는 기술관료에 가깝다. 이른바 '친환경' 건축물의 기계식 공조시스템 속에서 우리는 창문을 활짝 열고 자연이 주는 바람을 마음껏 누릴 수가 없는 경우가 다반사다. 컴퓨터가 우발적으로 형성한 비정형 공간 가운데 우리는 장인의 손때가 묻어던 건축 디테일의 아우리를 느낄 수 있을까? 테크놀로지가 이룩한 빛나는 건축물과 벗겨벗은 나 사이에는 참으로 많은 겹의 시스템과 관료제와 생산라인이 가로막고 있다. 나와

건축물 사이의 거리가 가까이 하기엔 너무도 멀어진 것이다. 19세기 후반 영국의 윌리엄 모리스가 수공예운동을 일으켰던 데에는 이렇게 산업화되고 기계화되어가는 사회에서의 인간 소외를 극복하려는 이유가 있었다.

앞으로도 과학기술은 지속적으로 발전할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테크놀로지 발전의 필연성에 전체주의의 권력이 투사되어서는 안 된다. 우리에게 과학기술의 산물을 취사선택해서 받아들일 수 있는 권리가 있다. 특히 이것이 인간 생활의 기본 조건인 거주에 관한 더욱 그러하다. 아무리 과학이 발전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모두 잠을 자고, 꿈을 꾸고, 밥을 먹고, 배설을 하고, 사랑을 한다. 창가에 앉아 따사로운 햇볕을 받으며 흘러가는 구름을 물끄러미 쳐다보기도 하고, 담장 밑에 피어난 노란 민들레 꽃잎에 미소를 짓기도 하며, 처마 밑 빗방울 떨어지는 소리에 우수에 젖기도 한다. 예나 지금이나 건축은 이러한 살 냄새 나는 삶을 담아야 하는 것 아닌가? 현재 우리의 삶은 호랑이 담배 피던 시절의 우리네 할아버지 할머니의 일상과 사실상 '근본적으로는' 달라진 것이 없지 않은가? 변하지 않는 인간 삶의 가치를 담아내는 것, 그것이 우선시 되어야 할 건축에서의 덕목이다. 다만 문제는 어떻게 하면 과학기술의 발전을 선용하면서도 과학기술 결정주의에 빠지지 않을 수 있을까 하는 것이다. 끊임 없이 고민해야 할 노릇이다.□